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2011

6

Worldview Interview

예영커뮤니케이션 김승태 대표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회복하라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례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기독교세계관과 킹덤비즈니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포츠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 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기자

임지연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중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교정 자문

임춘택

자원봉사(사진, 녹취, 교정)

이지현, 김하영, 김아리나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6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2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상단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
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CONTENTS 2011.6

WORLDVIEW PREFACE

04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김승욱

WORLDVIEW FOCUS

06 불신세상에서 살아가기 오정현

PEOPLE & PEOPLE

12 특별인터뷰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승태

WORLDVIEW COLUMN

18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회복하라 차성도

22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레 장유진

25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백승현

28 교회개혁을 위한 단상 2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김중락

32 성경적 경영시리즈 2

기독교세계관과 킹덤비즈니스 한정화

36 하늘소리 홈스쿨 오케스트라 이경원

39 김명엽의 찬송교실 4

영원한 나라를 맛보는 모범적 우리 찬송 김명엽

40 고전교육 시리즈 3

기독교적 고전교육, 그 즐거운 상상 안정진

BOOK REVIEW

46 『교회란 무엇인가』 이승구

WORLDVIEW NEWS

50 활동보고와 후원안내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신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김승욱

유럽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쇠퇴한 이유는? 100년 기업 GM 몰락의 이유는? 중국 미래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상의 세 질문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령화 현상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것을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HSBC보험그룹의 17개국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은퇴에 가장 비관적이었다. 영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은퇴라는 단어에 '자유'와 '행복'을 떠올리며 노후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자유'를 떠올린다는 응답은 34%로 세계 평균(4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재정적 어려움(55%)', '두려움 및 외로움(30%)' 등의 답변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축이 충분치 않아서'(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3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은퇴 후 가계경제 수준에 대한 질문에 '부모보다 조금 더 잘 살 것'이라는 응답조차도 38%에 불과했으며,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비율도 27%로 상당히 높았고, '조금 더 못살 것'이라는 응답도 16%로 적지 않았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이 시대의 고령화 현상은 과거 로마시대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인류는 위생, 암 정복, 장기이식, 호르몬 요법, 유전자 치료의 5단계 수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중이며 텍사스대학의 오스태드 교수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50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2045년에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Raymond Kurzweil)은 저서 "The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온다(김영사)>에서 반세기 내에 인간과 기

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인류는 불멸의 존재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각종 혁신·발명상을 휩쓸어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으며, 명예박사 학위를 15개 갖고 있다. 미우주항공국(NASA)과 구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이 바로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이고, 이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커즈와일 박사를 영입했다. 타임지는 지난 2월호에서 그의 견해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인간 생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않았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사회가 도래될 때 많은 서구 지식인들은 노동을 팔고 사는 산업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 사회 비평가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당시 시대를 "하나(농경사회)는 이미 죽었고, 다른 하나(산업사회)는 아직 태어날 만큼 힘이 없는 두 세계" 사이에 끼여 있는 처지라고 묘사했다. 이 진술은 현대에 더 적합하다. 놀라운 속도로 변하는 인류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 뉴욕타임스 106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메가트렌드 2000>에도 1990년에 발행될 때, 불과 3년 후에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못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올 빈부격차를 염려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대에도 죽음 앞에서 인류는 평등했다. 그러나 이제 돈으로 죽어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의 위력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서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오정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다.

지난 1200여 년이 넘는 개신교사에서 지금처럼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수치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근래들어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못난 모습이나 신자로 칭하는 이들이 신자답지 못한 부끄러운 행동들을 범하여 세상의 미움을 재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세상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숙명적인 일이다. 세상의 비수 같은 미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죽음을 상급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위협에 직면할 때 두려움으로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일상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기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야만과 포악함에 갑작스럽게 노출될 때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신앙의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베드로가 그러했다. 포박당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얼굴에 침 뱀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빵을 맞는 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세상의 잔인 무도함에 짓눌렸다. 그렇게 청춘을 바쳐가며 따랐던 스승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자 세상에 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베드로의 심신을 쓸어버렸고 그의 생각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홀로의 신앙생활에 갇힌 채 세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는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러했다. 그가 미국만리 낯선 곳으로 끌려갔던 시기는 꿈 많은 10대 때였다. 왕족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

한 처지를 한탄하며 꿈을 앗아간 세상의 횡포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가 맞선 세상은 당시 신적 위세를 떨쳤던 절대 권력이었다. 제국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온 세상이 그 앞에서 오금을 피지 못하던 절대 공포를 사춘기의 소년이 것처럼 거룩한 저항력으로 맞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나이보다 믿음의 철이 드는 것이 신앙적 생존력을 훨씬 배가시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다니엘은 세상의 거대한 공포와 위협에 맞설 수 있었을까?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평생의 출세를 보장하는 세상 권력과 목숨까지 요구되는 신앙,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극적으로 충돌하는 다니엘의 상황은 양상만 다를 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은 우리 신앙인들을 억박지르면서 세상의 힘에 고개를 숙이도록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날로 기체를 떨치는 맘몬주의와 세상 권세에 사로잡힌 막강한 세속성의 중력은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와 공포로 우리의 심장을 마비시켜 우리 속에서 신앙적인 열등감, 불안감, 좌절감, 불순종의 길로 내 몰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해체시키는 세상에서 고결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 땅에서 현실도피나 타협이 아닌, 현실에 참여하면서도 현실변혁적인 신앙인의 삶은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세상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에 감화한다.

얼마 전에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의 「래디컬」을 읽으면서 가슴 뛰는 문구를 접하였다. “죽음이 상급(賞給)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이 된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과 상통하는 글이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귀한 상급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급격한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회유에 맞설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이다. 죽음을 상급으로 삼으면 세상의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며 기꺼이 신앙적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트랜스포머’ 되는 것이다.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다. 우는 사자처럼 밤낮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앙기준의 절대치를 임계점까지 올려야 한다. 적당하게 사는 삶으로는 세상도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없다. 죽음이 상급이 되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푸른 기개를 가지고 맞설 수 있는 담력은 물론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칠전팔기의 강력한 영적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 일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순교적 의기(義氣)가 심장과 혈관을 타고 도는 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입는 것이다.

뱀처럼 지혜롭게 이웃의 마음을 얻어라
이 불신 세상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상급으로 삼는 순교적 용기와 더불어

어 세상의 예측을 뒤집는, 세속적 고정관념을 강타하는 뱀 같은 지혜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에게 불신의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주어져 있다. 로마서 12장 14~21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얼음장 같은 가슴을 데우고 미움의 칼날을 상생의 보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복음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권고 아닌 명령이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상의 사악한 기세를 복음의 신령한 기운으로 해독하고 반전시키는 힘은 세상적인 처세가 아니라 복음의 실천에 있다.

대개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다. 불신자들 역시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거나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자는 태생적으로 서로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를 가지도록 명령하고 있다. 적대적이며 세상 고집으로 뻗뻗해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지키면서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는 길 외는 다른 수가 없다. 세상은 우리의 지

성이나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에 감화하는 것이다.

겸손한 이웃이 되라

세상은 본성상 거만한 존재이다. 거만한 세상의 실체를 발가벗기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어보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은 세상의 이름이다. 한마디로 겉옷을 벗기면 뿔속까지 거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가 세상이라는 말이다. 거만한 자는 상대방을 분기탱천하게 하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겸손 앞에서 겸손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거만한 자 앞에서는 겸손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의 겸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리트머스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함께하는 이웃이 되라

사랑하는 사람의 희비(喜悲)에 동참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요 본성적인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마음이 통하지 않던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은 죄성에 반하는 어려운 일이다.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죄성의 중력을 복음의 대기권(大氣圈) 속에서 와해시키고 중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열 배나 강한 힘이 있어야만 한다. 설혹 나름의 신앙 인격이 되어서 우는 자와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은 상당

한 신앙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웃의 기쁨을 진정으로 자기화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최초의 비극이 동생의 잘됨을 질투하였던 형의 분노에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한다면, 이웃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라는 명령은 죄의 힘보다 열배나 강한 은혜의 중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복음의 불가항력적 차별성을 담보하고 있다. 저주와 핍박을 본업처럼 여기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만해도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축복까지 하라는 말씀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처럼 무리하게 보인다. 어떻게 이 말씀을 복음의 악세서리가 아닌 순종을 통하여 죄성을 발본하는 복음의 치명적 도구로 삼을 수 있을까?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

인간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보복심리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을 것”임을

Felix Hell

오르간 연주의 세계적 거장

펠릭스 헬 대한공연

2011

- 06.12(일) 오후 2:00 덕수교회 | 서울
- 06.13(월) 오후 7:30 장신대학교 | 서울
- 06.15(수) 오후 7:30 분당선사교회 | 서울
- 06.18(토) 오전 9:30 고신대학교 | 부산 (마스터클래스)
- 06.19(일) 오후 2:30 부산중앙교회 | 부산
- 06.20(월) 오후 7:00 고신대학교 | 부산 (후원자초청 감사의 밤)
- 06.23(목) 오후 7:00 제주성안교회 | 제주
- 06.26(일) 오후 4:00 부전교회 | 부산
- 06.29(수) 오후 7:30 울산교회 | 울산
- 07.01(금) 오후 7:30 경신교회 | 광주
- 07.03(일) 오후 7:00 포도원교회 | 부산

공연문의 051)990-2202

주최  **고신대학교**
KOSIN UNIVERSITY

후원  **국민일보**  **부산CBS**  **울산CBS**  **기독교보**

 **기독교TV**  **부산공동방송**  **울산공동방송**  **제주공동방송**



우리 속에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능력,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이웃이라도 겸손으로 품을 수 있는 관용력이 내재되어 있다.

경고하였다. 우리가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보복이 우리의 권한 밖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복은 축복도 삼켜버리는 저주의 블랙홀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복수의 피를 흘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만큼은 복을 빌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복이 신자의 머리와 가슴에 백해무익함을 증언하고 있다.

세상의 냉소와 미움, 위협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의 중력에 거룩한 용기로 맞서는 것이나 적대적이고 고집불통인 이웃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겸손하고, 원수라도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성정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 믿기 전의 우리는 진흙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능력,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이웃이라도 겸손으로 품을 수 있는 관용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능

히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반처럼 그 삶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 간 사역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부으심이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절감하게 된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령충만 없이 무슨 힘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 세상의 위협에 고개 숙이는 왜소한 신앙으로는 이 땅의 권세와 쾌락적 문화를 탐하고 숭배하는 세속의 질주와 쓸림을 막아설 수 없다. 목숨을 상급으로 여기는 순교적 영성, 차가운 세상의 마음을 녹이는 겸손함, 원수라도 주리고 목 마를때 먹이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살일 것이다. 불신세상에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세속의 중력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해독하고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의기(義氣)로 충만한 신앙의 열혈한(熱血漢)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임계점까지 신앙의 내공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이웃으로 섬김의 바닥까지 자신을 끌어내리는 결연함 위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달라고 침상에서부터 엎드리지 않으면 정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숭실대 영문과(BA), 종신대 신학대학원, 포항공itech대학교대학원 신학 박사이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Resident Fellow)하였다.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한국판 발행인이며, 한국교회봉사단 단장,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희망은 사람 사이로 흐른다』, 『교회의 심장을 깨우는 잠들지 않는 사역자』, 『열정의 비전메이커』 등이 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예영의 이름처럼

책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김승태 대표**

기독교 출판물 통하여 무명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독교성운동에 앞장서 왔던 예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김승태 사장. 그러나 최근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사랑하는 딸 선영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예영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영의 발자취,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했던 장녀 선영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인터뷰 정리. 임지연

사장님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수의사였던 아버지(김중웅, 서울대 수의대 1회 졸업생)와 수도여자사범대학 1회 졸업생이셨던 어머니(김중희)는 일찍부터 농촌 근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 운동 하셨습니다. 목촌목장이라는 목장도 운영하셔서 어린 시절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농민운동으로 훈장도 받으셨고 할아버지(김수철)도 감리교 목사로 3.1운동 당시 공주에서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늘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기에 청년시절 기독교문화운동에 심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집안환경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출판과 관련한 꿈이 있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시집, 잡지 창간호 등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를 한글판으로 출판하여 세상을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1970년대 당시에 유명했던 복싱 프로모터 돈 킹과 같이 사람들을 발굴하여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 적 꿈을 품고 2000년 초에 '리더스 라이프'라는 잡지를 발간한 적이 있었지만 2억 정도의 손실입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발굴하여 키우는 일은 출판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7살 되던 해, 어머니 임중을 혼자 지켜보며 죽음의 공포에 충격을 받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앙드레 말로, 알베르 까뮈, 생텍쥐페리 등의 문학에 심취하면서 모태신앙을 잃고 기독교신앙에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20대를 보내다가 양서각 출판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후 엠마오 서적의 도매영업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높은 영업실적을 올리게 되었죠. 그 당시에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틀 같이 좋은 저자들도 있었지만, '내가 본 천국'이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와 같이 세대주의적인 책들이 무비판적으로 대량판매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 출판도 상업화될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를 읽으면서 방향하던 신앙이 정리되었습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나와 그것, 즉 물질, 명예, 미모, 실력 등 비인격적인 것으로 모든 관계가 왜곡되는데 진정한 인간성이 신앙 안에서 회복하려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내면에 숨어 있는 영원한 너, 즉 하나님을 서로에게서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보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엠마오를 그만두고 주찬양선교단에 기획실장으로 들어가면서 문화선교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고 찬양캠프 등을 개최하면서 문화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1991년 4월, 예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복음과 상황, 낮은 울타리 등이 창간되는 등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출판사의 이름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사역들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 라브리의 성인경 목사님이 한국에서 라브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황성주 박사님과 함께 라브리 사역이 정착하도록 돕던 기억이 납니다. 라브리와 관련된 다양한 출판물을 했었고, 기독교출판협회의 <기독교출판소식> 창간호도 예영에서 편집의 틀을 잡았었습니다. IVP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도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예

영에서 사무실을 제공하여 시작할 수 있었고, 기독교문화상품권의 디자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경영연구원, 이슬람연구소 등 다양한 기독교성단체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양승훈 박사님이 출국하시면서 몇 년 간은 CUP를 위탁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출판해 드림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예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했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세우려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영에는 다양한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출판사들이 출판을 꺼려하였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판한 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저는 부모를 일찍 잃어(9살 때 아버지, 17살 때 어머니)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인생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아파도 도와달라 할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성인이 된 이후, 거절당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출판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지지 못한 필자들도 존엄한 사역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중성이 없고 알려지지 못했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믿음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려는 생각으로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커버린 사람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발굴하는 사역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예영의 이름처럼 우리가 정상에서기보다 그들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끌어주면 우리도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예영 정신이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출판이 거절되는 원고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는 재고로 남기만 하는 것들도 많았고 더군다나 예영은 다른 곳에서 출판이 거절된 원고도 출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돌면서...저는 이것이 예영을 칭찬하는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돈 안 되는 출판물은 예영에서 출판하고, 이익이 될만한 원고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시는 저자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원고를 출판해 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저였고,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던 것도 역시 저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예영 커뮤니케이션즈가 창립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도 몇 번 넘기신 것으로 이는데 사장님에게 예영은 어떤 곳인가요?

예영은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 꿈을 펼치는 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영은 돈 안 되는 출판도 다 해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칭찬인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경영자로서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용을 많이 망가트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



이죠. 경영부진은 사회범죄이고 그리스도인 경영자라면 이런 부분에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도 정당하게 가야하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진로에 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성급히 이루어야 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급함이 사역을 망가트리기도 합니다. 예영은 최근 몇 년간 채무변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원 단위까지도 정확한 회사로 거듭나서 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명의 사람을 발굴하고 돕는 사역은 계속하겠지만 이제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돕기로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말고 계신 일들이 많아 늘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만 가정에서는 어떤 아버지였나요?

늘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였어요. 부족한 생산성을 몸으로 때우느라 집에서도 컴퓨터로 일하고 한국기독교출판의 국제교류 창구역할을 맡아오다 보니 좀 힘겨운 면도 있습니다. 교회 일로도 바빠 아버지로서는 0점입니다. 장녀인 선영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저를 이해하고 잘 따라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가보다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가 더 중



1. 선영이의 생전모습
2. 한신대 입학식에서
3. 태안 기름유출사건 당시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벌였던 선영이
4.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모습
5. 독일여행 중에
인상깊게 보았던
로텐베르크의 크리스마스샵
6.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7. 독일 카이제베르크
슈바이처 박물관에서

요하다고 느낍니다. 선영이 보내면서 블로그나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들을 살펴보니 친구들과는 평소 가족과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더군요. 아버지로써 함께 했던 시간은 많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얼마나 했었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따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갑작스레 곁을 떠난 선영이에 관하여 조심스레 여쭙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도와 출판사 일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장님께 선영이는 어떤 딸이었나요?

선영이는 호기심이 많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어요. 제가 하는 사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기독교문화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감각 뛰어났지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성격이어서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나니아 연대기』 등의 경우는 책을 여러 번 읽어 내용을 꿰뚫고, 영화감독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 영상화하는지, 원작에 얼마나 가까운지, 원작자의 의도를 감독이 바르게 해석했는지 등 비평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연극반으로 활동하면서 연기부터 무대장치까지 연극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며 정열을 쏟기도 했었죠. 제가 반대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함께 독일여행

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연극에만 집중하던 생각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저와 관계회복도 많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로 예영의 출판편집을 도왔는데 일을 빨리 배우면서도 맡겨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탁월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해결하는데 묘미를 느끼던 아이였어요. 그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맡겨 건강을 해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특히 문화, 예술쪽으로 재능이 탁월했기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 일찍 떠난 것이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립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선영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여쭙봐도 될까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빨리 잊으라고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선영이를 생각할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삶의 흔적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영이의 블로그나 싸이, 카카오톡 등에 친구들과 주고 받았던 대화와 글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영이의 생전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뮤지컬에 심취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뮤지컬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요. 육신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태어나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나버린 것이 애석하여 대신 꽃을 피워주고자 합니다. 또 함께했던 독일여행 중 로텐베르크에서 크리스마스샵(예수탄생을 축하하는 동화같은 샵)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크리스마스샵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용품과 책, 카페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해 질 것 같아요.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선영이의 이미지와 생명력을 문학이나 문화 등 다른 쪽으로 크로스오버 시킬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세요?

지난 연초에 제가 섬기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 한국교회 회개를 위한 연속설교를 해 보시면 어떠시겠냐고 의논을 드렸었는데 목사님도 쾌히 승낙하셔서 10주간 연속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이 내용을 편집하며 6월 초에 『주여!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됩니다. 이런 시기에 선영이 문 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사탄이 좌절해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하

는 생각에 더욱 마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를 외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경각심 갖고,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소중한 선영이를 잃었지만 그것으로 소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제대로 하기 위한 쓰라린 경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서 부분에서 아시아 스탠다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출판은 영어권 다음으로 세계에서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복음화율은 높는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이 없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적지도력을 잃어지기에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모든 영역의 기본 텍스트들을 영어로 출판하여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출판물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영이처럼 문학, 예술 쪽으로 재능이 있는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유럽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여행을 다니며 비전을 나누고 멘토링을 해주는 일도 계획중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회복하라

(sunday school) (church school) 차성도

국가는 모든 공교육에서 종교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공교육이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교육받는 사람의 특성, 진리의 성격 등은 모두 종교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라고 노르만 하퍼는 '현대기독교 교육'에서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무(無)종교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본주의는 공교육의 모든 과목을 통해 철저하게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어린 시절부터 구조화되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삶은 마치 깨드릴 수 없는 웅벽과도 같다. 웅벽처럼 굳어버리도록 십 수 년 동안 방치한 세상의 사고들이 몇몇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통해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지혜로운 농부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눈에 직접 뿌려진 법씨는 너무 연약하여 바람만 조금 불어도 견디질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자의식이 생기고 가치관을 형성되는 청소년기까지는 철저하게 외부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킨 후에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해야함에도 지금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역

순을 밟고 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후에 기독교적 교훈이나 세계관을 덧붙이는 정도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목표로 명시된 '기독교세계관의 정립을 통하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의 변화를 추구'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대안(代案)교육이 아니라 원안(原案)교육으로 회복해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방을 따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예를 들어 전쟁 때마다 나팔이 울리면 모여들어 적군을 대적해야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의 왕들이 조직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루는 것들을 보고는 '이방과 같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길 요구한다(삼상 8장).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엄히 경고하시고 왕정 제도의 문제점들도 상세히 알려주었으나, "우리가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삼상 8:20)"라며 하나님의 통치대신 왕의 통치를 끝까지 고집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학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시길 계획하셨

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눈에 효율적이기만 하면 '우리가 열방과 같이 되어'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방의 제도를 따라하던 과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학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시길 계획하셨지만, 성과와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일임하면서 가정과 교육이 분리되었고, 신앙의 영역만 관여하겠다는 교회와 교육도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에서 떨어진 교육의 분업화(?)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지금보이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찾으면 차후에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따름이다. 대안이라는 차원으로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공교육을 대신할 대안(代案)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안(原案)교육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원래 목표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원안교육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성경으로 돌아가 교육의 문제를 풀어보자.

해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계획하셨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에서 보듯이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야한다고 알려준다.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려면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각 마디가 연결되지 않고는 각 지체의 은사들이 흘러가지 않으며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는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으며,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예외 없이 다른 기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곳은 자녀교육

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간과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자녀교육이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은 부모라면 결코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기독교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해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다. 또한 자녀교육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면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외쳐도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다.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에 의해 삶의 모든 태도 및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가져야 할 목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



“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외쳐도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다.** ”



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교육에서 공동체성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이겠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결국 부모들이 바른 목표를 가져야만 바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면, 바른 방안을 실행하려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 회복의 문제이다. 이처럼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주일학교(Sunday School)을 교회학교(Church School)로 회복하자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성경만 교육하는 주일학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과목을 통해 전인적인 예수님의 제자들로 양육되는 교회학교로 회복되어야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성경공부를 가지고 수십 시간을 철저히 주입하는 인본주의 교육을 이겨낼 재주는 없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사지로 자녀들을 몰아넣고는 어떤 요행을 기대하는가? 교육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육의 방안대로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한다. 교육 공동체인 교회학교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기독교세계관의 정립이 가능하다.

홈스쿨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가 해결책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

아지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국내에 몇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야 기독교 교육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백 개나 되는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어 한 학교당 백 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은 만 명에 불과하다.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교 부지 및 건물과 교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은 만만치 않다. 또한 매달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각 학생들이 부담하는데도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의 책임을 맡기셨지만 각 홈스쿨링 가정이 교육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의 어려운 점들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의 원리까지 충족시키는 방안은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홈스쿨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이다. 교회에는 이미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러 홈스쿨들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육 공동체를 교회가 지원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와 홈스쿨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동시에 해결된다. 교육 공동체를 이룬 교회학교에서는 학생은 우리들의 자녀이고, 교사는 우리들의 부모이며, 교실은 우리들의 가정이고 교회이다. 우리 조상들이 품앗이로 서로 도왔듯이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소유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룬다. 교육의 책임과 운영은 부모들이 맡지만, 교회는 행정력과 장소를 지원해 줄뿐 아니라 신앙의 우산이 되어야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되

었던 기독교 학교들이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세속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사탄은 왜곡된 교육열을 이용한다

사탄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의 왜곡된 교육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느 부모도 자녀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교육이 제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만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험생 가정의 살벌함, 조기 유학생들의 분리, 기러기 아빠의 방황 등에서 보듯이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의 축소, 중고등부의 무관심, 청년대학부의 몰락 등과 같이 교육이라는 거센 회오리에 교회마저도 휩쓸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 안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제자리를 이탈한 교육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교회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면 회복될 수 있다.

황폐화된 가정과 교회를 원안교육으로 회복하자

대부분이 명문학교의 입학과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독교 교육이 출발할 수 없으며,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뿌리내릴 수 없다. 부모가 움켜쥐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

이며, 성경의 교육목표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왜곡된 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학교가 시작될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다. 각 가정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면 시너지 효과로 현실의 높은 벽도 함께 넘어설 수 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나눌 수 있다. 더 이상 가정, 교회, 학교는 분리된 독립기관이 아니라 한 공동체이다. 앞에서 제기된 모든 어려움은 교회가 원래 갖고 있던 공동체의 회복, 즉 '가정 같은 교회'와 '학교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리신 명령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비전에 '지성의 제자도는 외침만으로는 부족하며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외침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영혼 모두로 이루어야할 최우선의 제자도는 자녀교육이다. 이 세상을 급진적으로 변혁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앞서서 원안교육의 회복을 시작해야 소망이 있다.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원안교육을 통해 회복되기를 꿈꾼다.



차성도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임호실 자매와 홈스쿨링을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4학년인 진영, 그리고 현재 홈스쿨링 중인 진성과 함께 가정·교회·학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홈스쿨링, 예수존 교회, V-School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례

하루에 6000여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3천만 명이 받은 여성할례

장유진

여성할례(Circumcision 또는 FGM-Female Genital Mutilation). 내가 만든 방송 프로그램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이 아이템을 정한 뒤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에 제8회 여성영화제에 소개되었던 김 론지노트 감독의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다. 여성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지 눈으로 보는 순간 많은 충격을 받았고 나도 이 사실을 방송으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2005. 12월 마지막 날. 신년을 맞이하여 다소 들떠 있는 분위기를 뒤로하고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가는 해외촬영에다 아프리카는 처음이었다. 아프리카도 처음이었지만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지금은 많이 발전되었다고 들었지만 내가 갔을 당시엔 도시에 전기도 없었고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많이 낙후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성할례는 연말에서 신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골을 중심으로 행하여진다고 하였다. 도시에서도 암암리에 한다고 하지만 몰래하는 경우이고 시골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을 통하여 한다고 해서 시골로 취

재를 가기로 하였다.

물론 미리 섭외를 하는 것도 불가능 하고 현지인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동양인이 가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했지만 아마도 처음 맡은 방송일이고 여성할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취재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조차 잘 모르고 갔었던 것 같다.

시에라리온의 할례현장을 가다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시에라리온. 92년부터 군사쿠데타 및 내전으로 살인, 신체절단, 약탈, 방화 등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나라.

2000년 5월 반군 RUF의 수도 프리타운 진격으로 재개된 정부군과 반군과의 교전상황은 유엔 평화유지군 강화 및 영국군 파견에 힘입어 2000년 11월 휴전을 이룬 후 정세가 안정 되었고 2002년 1월에 반군들의 무장해제로 내전이 공식 종료되었다. 현재 시에라리온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할례라는 관습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매년 새해가 되면 할례의식이 치러진다는 정보를 듣고 취재에 나섰다.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차로 6시간의 감비아 마을. 많은 여성(일명 ‘소사이어티’란 그룹공동체)들이 모여서 할례의식을 치루고 있었다.

할례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음핵을 제거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 생식기를 부분적 혹은 전부 제거하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전통이라는 이유로 시에라리온에서만 90%이상의 여성이 이를 경험했다.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성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은 여성만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여성으로 존재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다. 만약 이 의식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남편을 구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의식을 거행하지 않은 여성과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비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할례의

식을 위해 춤을 추고 있었고 3명의 여성이 할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 ‘둔부아’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여성이 아닌 유아에 가까운 이 아이가 할례를 받는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었지만 이곳에선 흔한 일이라고 했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할례의식을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소녀들은 상처의 통증을 줄여준다는 기름을 바른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

딸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 울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마을의 규율에 맹세까지 했지만, 정작 소녀들은 할례가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할례가 이뤄지는 장소는 ‘분두’라 불리는 곳으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데 마을사람들에겐 성스러운 자리이자, 남성은 물론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조차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금지구역’이었다.

할례의식 후에는 대대적인 마을 축제가 다시 시작되고, 분두에서 나온 소녀들에게 화려한 옷과 선물이 주어졌다. 이제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 소녀를

할례의 후유증은 심각한 출혈과 파상풍, 쇼크가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만성적인 감염과 반복되는 출혈, 우울증이나 정신이상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둘리싸고 이웃들의 축하 세례는 계속됐지만 할례를 받은 소녀들의 표정은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아픈 상태에서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춰야 하기 때문이었다.

할례의 폐해성

여성 할례는 4,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그들에겐) 축하 의식이다. 대부분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고대 풍습은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시행되는 여성 할례는 남성의 포경수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성의 경우 할례, 즉 포경수술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위생을 위한 것이고 매우 간단한 수술이지만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녀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매우 위험하고 야만적인 폭력이다. 할례의 후유증이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자명하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잘라지는 정도에 따라 그 후유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육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종종 나타나는 육체적 후유증으로는 심한 출혈, 감염(특히 파상풍) 그리고 쇼크가 있다.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하게 절단되는 경우 사망률은 30%나 되며, 만성적인 후유증으로서 감염, 반복되는 출혈, 우울증이나 정신이상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오고 성교 시 통증과 성적불감증을 동반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이상의 여성들이 이 할례의식을 치렀다. 이집트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할례 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뿌리 깊은 할례전통은 극소수의 상류층만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고수되고 있다.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라는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수단 여성의 98%, 이집트 90%, 소말리아 99%, 에디오피아 90%, 에리트리아 90%, 시에라레온 95%의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매년 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서만 약 200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이 여성 할례를 경험한다. 비전문가에 의해 비위생적인 칼로 전염성 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여자아이들의 숫자는 오직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수천 명의 여성들이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숨기며 평생 안고 산다는 점이다.

(다음 호에 계속)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해외시사 프로그램 W를 4년간 50여편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프라임'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의 조망

백승현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사회로부터 벗어나 정치와 무관하게 또는 절연한 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란 인간실존의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투표하기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어느 정당과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살피고 가능하려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 분리원칙에 위배?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다. 기독교 문명권인 북미 유럽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개념이 확립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는 바로 이 원리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는 18세기부터 확립되기 시작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인정,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후 서구에서 확립된 전통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가 더 적절한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하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 또는 신앙생활을 사적인 문제로 보고, 정치를 공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종교와 교파별로 각기 다를 수 있는 예배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간섭하거나 또는 국교를 지정해 강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조직이 국가의 운영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원칙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현실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직교회 차원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인 시민답게 그 신앙에 비취 현실정치 문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종교적 배경보다 먼저 어느 후보가 성경적 가르침에 합치되는 도덕적 및 정치적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고 구현할 수 있을만한지를 선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투표나 여론형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함축한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각 개인은 국가사회의 궁극적 주권자이다. 이에 더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 민주 시민은 하나님이 그 국가사회에 붙여놓은 청지기이다. 그런 만큼 기독교인은 정치적 식견과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유권자로 참여하거나, 또는 정부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견을 표출해야 할 권리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나라' 즉 우리의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세속국가의 시민권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민권 등 두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다.(Christians are in this world, but not of it.) 이 세상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국가를 만들고 존재케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비록 국가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질서 속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해 제정된' 제도와 산물이긴 하지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기독교인이 그의 삶에서 현실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별하고 판

단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서로 관계없는 별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즉 신앙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현실 정치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 후보자에게만 표를 던져야 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제기된다. 개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종교적 배경이나 확신이 무엇이건 간에 관계없이, 그보다 먼저 어느 후보가 성경적 가르침에 합치되는 도덕적 및 정치적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하고 구현할 수 있을만한지를 선별기준으로 삼아 그에—심지어 그 후보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지지를 보내야 한다.

성경은 정부공직을 맡고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디모데전서 2:2) 위함이 그 이유이다. 바울은 또한 비단 기독교인의 권세만이 아니

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로마서 13:1)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로마서 13:4)고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인 유권자가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정책, 이슈, 자질, 능력 등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어떤 후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던지기로 결정한다면, 과연 그의 결정은 신앙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장로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힘을 모아 표를 던졌다. 그러나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나서,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달라지거나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는지 엄밀히 따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선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명박 후보를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지지하는 양태를 보인 게 비기독교인 유권자들 특히 불교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주고, 오히려

기독교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설령 국회의원 전원, 행정부의 장관 등 공직자 전원, 대법관 전원, 모든 공무원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인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은 그저 이 땅의 나라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한복음 18:36)."



백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BA),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MA),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Ph.D.)에서 수학하였다.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삼괴학원(삼괴중고교, 장안여중)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정치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National Covenant 서명

교회개혁을 위한 역사단상 2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김중락

본 역사단상은 한국교회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역사에서 얻고자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역사학자인 저자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를 통해 현재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운 시각으로 직시하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종교개혁 직후 스코틀랜드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모든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잘 개혁된 교회” 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개혁사는 한국 교회가 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연재 순서

1.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2.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과 한국교회
3.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 참여

스코틀랜드 국민언약

1638년 2월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Greyfriars) 교회에는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목사들,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의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모였다.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전국민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 담임목사이자, 그해 글래스고우 총회의 총회장을 맡게 될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이 초안한 것이었다. 이 문서가 소위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National Covenant)」이다. 참석한 이들은 환희의 눈물로 언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서의 사본은 전국 각지로 보내졌으며, 3월 말까지 일부 고지대(Highland)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각 교회 교인들은 「국민언약」에 서명한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언약운동은 1630년대 국왕 찰스 1세의 친 가톨릭 정책에 대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의 대응이었다. 「국민언약」에 서명한 사람은 이후 국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언약에 들어간 것이었다.

사실 「국민언약」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것이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맺은 언약은 아니었다. 최초의 스코틀랜드 국민언약은 「부정고백(the Negative Confession)」이라 불리는 1581년의 언약이다.

「부정고백」은 당시 가톨릭 세력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던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부정고백」은 교회에 대한 왕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한 1578년의 「제2 권징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를 지키고자 한 언약이기도 하다. 「제2 권징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핵심, 즉 장로교 정치(polity)를 규정

한 것이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1603년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함)는 이러한 장로교 운동에 반발해 교회에 대한 왕의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부정고백」은 가톨릭 배척 언약인 동시에 장로교 수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81년 「부정고백」과 1638년 「국민언약」은 공통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국민이 지켜야 할 언약의 목표는 ‘가장 잘 개혁된’ 그들의 장로교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두 언약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수호를 위해 언약문화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1638년 「국민언약」은 1581년 「부정고백」의 갱신이었던 것이다. 스코틀랜드 인들은 언약 뿐 아니라 언약의 갱신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언약문화의 유래

그러면 16-17세기 스코틀랜드 국민의 언약문화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1638년 당시 스코틀랜드 언약운동의 지도자이며, 변호사인 아치발드 존스톤(Archibald Johnston of Wariston)은 4월 19일 일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유일한 두 나라인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유사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전 국민이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간 민족은 스코틀랜드 국민이 유일하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흉내 내어 「국민언약」에 들어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문화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선민적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신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신의 선민이 되었고, 그들의 국가는 언약국가(Covenanted Nation)라고 믿었다. 「국민언약」 직후 후

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총회에 스코틀랜드 특사로 활약한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목사는 “오! 스코틀랜드, 그대 이름이 성경에 기록 되었음을 감사하라”라고 외쳤다. 러더포드에게 있어서 스코틀랜드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언약(Covenant)은 구약성경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특별한 민족 또는 특정 인물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였다. 대개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며, 선택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지만, 만일 불순종한다면 징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또는 ‘내적’ 언약과 하나님과 전 국민 간에 맺어지는 ‘연방적’ 또는 ‘외적’ 언약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국민언약’이라고도 불리는 후자는 국가교회의 전 구성원 즉 국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 구약성경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차례 연방적 언약에 들어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맺은 국민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열왕기하 23장).

또한 언약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엄중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약속은 아무리 ‘언약’이라 칭해도 그것은 인간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열강

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국제연맹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언약이라 칭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였다. 그 언약은 즉시 깨졌고 인간은 수십 배나 참혹한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1638년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의 결속된 힘을 형성하였고 이후 국왕의 무력침공에도 굴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지켜낼 수 있었다. 1638년 8월에 열린 글래스고우 총회는 지금까지 국왕이 마음대로 교회에 도입한 가톨릭제도를 일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처벌의 위협을 무릅쓴 결정이었다. 그들의 언약은 스코틀랜드의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 청교도를 고무시켰고, 그들 역시 언약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위대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낸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시 이러한 스코틀랜드 언약운동의 결과로 소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대한 자취를 역사에 남겼던 것이다.



National Covenant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1630년대 스코틀랜드 교회는 외부의 힘에 의해 오염되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말했듯

이 외부적 도전보다는 내부적 도전이 더 무서운 것이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돈과 권력에 취해있으며,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반하는 무서운 성직주의에 젖어있다. 강단은 복음과 진리 대신 억지와 광대놀음과 무례로 가득 차 있다. 극단적 근본주의는 모든 국민과 타종교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회의 재정은 사치와 내부 잔치로 낭비되고 있으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커녕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을 어찌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올바른 궤도에 다시 올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부재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개혁해 나갈 힘의 부재이다. 우리는 넘어져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다. 그 힘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힘을 받아야만 한다.

1638년 스코틀랜드의 국민언약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국민에게 힘을 부여한 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였고, 그들이 그렇게도 굳게 믿었던 ‘가장 잘 개혁된 교회’, 장로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스코틀랜드 국민의 언약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7세기 스코

틀랜드를 모방하여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민족 차원의 언약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어찌 국민언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국민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동일한 구성원이었다.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언약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고 한국교회 각 교단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감으로 가능하다.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언약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이스라엘과 스코틀랜드가 선민이듯이 우리도 선민이며, 그들이 언약국가이었던듯이 우리의 교회도 언약교회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단마다 개인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다.



김중락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지부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독교문화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WORLDVIEW COLUMN

성경적 경영시리즈 2

기독교 세계관과 킹덤 비즈니스

(주)한국 교세라 정공(Kyocera Precision Tools Korea)의 사례분석

한정화

영적자본과 창조적 역량

크리스천이 CEO인 기업은 많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나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거듭남의 체험도 있고 개인의 신앙고백도 분명하지만 기업경영 방식에서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의 신앙적 가치관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기업의 경영방식과 조직문화에 체화되려면 지속적인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가 필요한데, 많은 크리스천 CEO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 크리스천 기업인 가운데 ‘킹덤 비즈니스’, ‘킹덤 컴퍼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출발점은 자신을 경영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철저한 회개와 자기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 가운데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기업가로 부르신 것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며,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깨달아 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 모든 변화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깨어남(awakening)’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다가 깬 때’가 되었다고 하신다(로마서 13:11).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라고 말씀하신다.

한국 교세라 정공의 사례

‘십자가 경영’을 통하여 성경적 변화관리의 모델을 보여준 한국 교세라 정공의 사례를 살펴보자. 전직인 사장은 경영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직원들의 영혼구원에 관한 책임을 물으실 때 그는 “저는 사장이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회사를 맡겨 주신 첫 번째 소명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직원들에게 질 좋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좋은 조건의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에게 주신 직장, 일터가 바로 선교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점은 기독교경영이 매출과 이익을 무시하는 경영이 아니라 기업목적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지이며 자기 자신이 바로 선교사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는 직원들의 영혼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사람을 점검하면서 매출과 이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경영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출과 이익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직원들의 영혼 구원으로 바뀌면서 경영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점이 기독교경영은 매출과 이익을 무시하는 경영이 아니라 기업목적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전사장도 자신이 기업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소명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을 갖기 전까지는 보통의 크리스천 CEO에 불과했다. 잘 알려진 대형교회의 장로이며 괜찮은 크리스천 사업가였다. 그러나 소명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기업현장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핵심인력의 제자훈련이었다. 회사의 본부장급 임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영혼구원과 더불어 사원들을 먼저 제자화시키라는 것이 기업을 통해 주어진 자신의 소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러한 갑작스런 제안에도 본부장들이

응한 것은 그간 사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변화관리 과정에서 변화관리의 후원자 역할을 할 리더십 팀을 형성한 것이다.

핵심인력과 소통을 이루면서 다음 단계에서 전사장이 한 일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영혼 구원 사역팀을 만들었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15개의 소그룹을 만들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비전도 설정했다.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라는 말씀에 입각한 소그룹 활동이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은 기독교경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다. 기독교경영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경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많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그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세라 정공의 경영방침

전사장은 세 가지 경영방침을 세웠다. 첫째는 목표는 관리경영이다. 둘째는, 아메바 경영(소그룹 독립



경영)이다. 셋째는, 몸과 지체의 경영(사랑의 공동체 경영)이다. 첫째와 둘째는 교세라 본사 경영방식의 핵심 사항이다. 세번째 경영방침은 크리스천 CEO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원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신 것은 개인 구원과 개인 축복에 머무르지 말고 가정공동체의 일터 공동체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라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전사장은 변화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조직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랑의 공동체 조직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경영의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매번 던지기 시작했고, 모든 물음의 답을 기도와 묵상에서 찾고자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전 직원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공동체 팀 내에 선교, 양육, 섬김, 봉사, 예배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한 기업 전체에 섬김의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의 훈련을 실시했다. 교세라 정공은 가족 섬김, 공동체 섬김, 외국인 근로자 섬김, 북한동포 섬김, 장애인 섬김 등 전 사원이 최선을 다해 '섬김'을 배우고 실천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수평구조는 편안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의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섬김을 받은 자가 또 다시 섬기는 자가 되고, 리더는 또 다시 리더를 낳는 일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기업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변화의 과정

가족같은 분위기는 실제로 회사를 활기차게 변화시켰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져 업무수행 능력이 눈에 보이게 향상되었다. 투명한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서로 돕는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직장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의 감격이 없었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니 예배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교세라 정공은 현재 전 직원들 가운데 86%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49%의 직원이 제자양육을 받고 있다. 전 사원이 동일한 교재로 큐티를 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사장의 경영마인드와 목표를 전 사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경영방침의 빠른 공유와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자 경영성과도 향상되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의 내면을 파악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에 접근했다. 매출, 생산 등의 달성이 어려운 팀들은 경영분석과 함께 영적인 관점에서 내면을 점검하는 것이다. 성과가 부진한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다그치기에 앞서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팀별 큐티를 가지면서 소통을 했다. 이러한 경영 방식에 대해 외부 사람의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많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내면에는 보다 심층적인 문제가 있고, 결국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반 경영학에서는 이 점을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정의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경영 변화의 결과

이러한 변화경영의 결과 2001에서 20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획했던 매출 목표와 이익목표를 달성했으며,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교세라의 수많은 해외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이 되었으며, 정직한 회계와 정직한 납세를 실천하여 모범적인 납세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해 대학생을 위한 기독교경영캠프에 전회인 사장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을 때,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 그 중 한 학생에게 강의를 들은 소감을 물었더니 "교회인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분명히 사업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활동 내용은 교회와 똑같네요" 등 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떠나던 전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더니 경영성과가 탁월하게 향상되었는데, 그 원인을 경영학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청을 받고 한국 교세라 정공의 경영성과 향상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공동체의 하나됨과 성숙으로부터 나오는 경쟁력이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불안정하고 내면에 많은 상처와 어두움이 있다. 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사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공동체는 경영효율성이 향상된다. 섬김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높



아지고 주인의식이 형성된다. 전 직원이 진정한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자원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모든 경영조직의 근본 문제인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최소화 되고, 불필요한 감시통제 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불신과 기회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창조성의 발현과 혁신경영이 가능해진다. 서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조직에서는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샘솟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요즘 많이 강조하는 편경영(fun management)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혁신방법의 도입 시에도 거부감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 학생이 다시 물었다. "신앙이라는 무게로 인해 직원들이 답답해 하지는 않을까요?" 나의 답은 "참된 신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발성을 무시한 통제적 신앙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 교세라 정공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참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로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업 경영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다.



한정화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2009년 벤처코리아 유공자 부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중소기업론』 등이 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소리 홈스쿨 오케스트라

이경원



하늘소리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운 시간이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홈스쿨해야 하는 부담으로 무엇인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악이 시작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음악의 기독교적 관점이 갖는 실제 의미들을 많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놓은 신 소리와 음의 물리적 기초와 음악적 요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늘소리를 통해 누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가능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 환경 이해하기

찬송가를 4부로 연주할 때 작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나는 소리, 여러 악기가 멋진 리듬과 화음을 연주하는 기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가 담기는 그릇인 공명이 풍부한 환경에서 다양한 음과 화음을 듣고 구별하도록 훈련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좋은 환경 안에서 교육될 때 아이들은

키가 크듯 음악적 은사도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의 원리를 무시한 환경에서 너무 큰 마이크나 이어폰으로 증폭된 소리에 익숙해지면 되려 청각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음악적인 귀는 무뎠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부)전공자가 나오고 악기제조와 음향 전문가를 하겠다는 학생도 나오고, 마음을 열어 대화하게 된 아이들, 모두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 평생을 연주할 수 있는 기쁨이 만들어진 것 등등 이 모두가 건강한 음악 환경에서 만들어진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음악 활동과 시간 사용

보잘것없는 연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각자 흠어진 곳에서 작은 문화들을 만들어갑니다. 또래의 아이들이 게임에 심취하다 못해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일단 건전한 음악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게임 대신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일단 안심이 되지요. 더 나아가 게임 하고 싶은 마음을 점점 더 생산적인 연습시간에 쏟게 될 땐 감사함이 절로 나옵니다. 행여 연습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 땐 전문성으로 한걸음

나아가는구나.. 기대감도 생깁니다. 양로원, 교회 찬양시간, 가족 모임 연주, 병원 연주로 확대되고 고급 연주 무대의 기회도 생기며 새로운 세계를 맛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품성 보너스

우리가 덤으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적 즐거움을 알고 풍요롭게 누릴수록 학생들은 대개 자기 시간 사용과 공부의 즐거움 등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음악을 누리게 되었다든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듯 좋은 음악과 소리(연주, 음향)를 구별하게 되었다든지, 첫 악보를 읽는 시간이 예전과 달라져 연주 곡의 폭이 넓어지고, 음악적 표현과 그 만족감으로 아이의 마음 발이 다양한 정서의 꽃으로 채색되었다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대로 노력하고 거두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내와, 보다 큰 즐거움을 기대하며 지금의 고된 연습 과정을 위해 기꺼이 사사로운 즐거움을 포기하는 자기 절제를 배우고, 앉아 있기가 어려웠던 친구가 오래 앉아 잘 듣게 되었다는 등 셀 수 없는 보너스들입니다.

음악 속으로

무엇 보다 귀한 선물은 아이들이 음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화음과 선율, 리듬의 명료함과 음색과 라인(articulation) 등 음악적 표현(expression)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연주 차이를 구별하여 자기 연주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적용이 음악 안에 있는 공간적, 논리적, 물리적, 수학적 개념의 이해로 연결되고, 그 수학적, 물리적인 완전함이 주는 아름다움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선물이요 작품인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연주하면서 누리는 기쁨

아마추어이지만 아이들이 만나는 연주과정은 어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마음과 귀를 열어 옆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기준이 되는 박자에 맞춰 내 소리와 남의 소리 사이를 오가며 조절하고 그에 알맞은 음가와 균형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작곡가의 의도와 그가 속한 시대를 묻고 알아야 하고, 음악적 예민함(감수성)을 가지게 되면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을 전

달하고 싶어집니다. 청중은 준비된 연주자의 요리를 맛보고 같은 마음으로 감동하겠지요. 한 마음으로 연주된 음악과 하나되어 듣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삶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화합의 속성이지요.

6년 전 미국 텍사스에서 한 가족 다섯 식구(John, Susan, Ruth, Grace, Jonathan Willing)가 왔었습니다. 세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늘 대화하며 음악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지를 준비해온 가족이었습니다. 무척 다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생소한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일부를 드러 하나님께서 오병이여로 많은 아이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헌신했습니다. 악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나누어 줄 때마다 심기운 곳에서는 짝이 자랐고 지금의 6살의 무성한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욕심도 내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오케스트라가 잘 정착되고 잘 관리되는 것을 보고 3년이 지나 사명을 완수 했다고 여겨졌을 때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도 잃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악의 원리를 잘 이해한 건강한 리더쉽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늘소리가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윌링 가족의 비전과 건강한 신앙의 균형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 위에 건강한 음악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움에 눈뜨고 예술의 완전함에 다가가

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완전함과 아름다움,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음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요 감격입니다.

연주회 소개

6월 2일과 7일 각각 7시 30분에 두 번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일 연주(전석 초대)는 제 11회 용인 여성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정기 발표회로 어린 주니어 단원들과 새로 조직된 앙상블 팀,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니어 오케스트라는 Fantasia on Greensleeves, 플링크 플랭크, 코렐리의 가보트 등을 연주합니다. 반면 7일 연주(인터파크 티켓문의)는 성남 아트 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환우를 돕는 자선 연주회로 앙상블팀과 시니어 오케스트라만 연주합니다. 앙상블 팀은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콘체토 3번 전 악장, 보케리니 첼로 콘체토 Bb 장조 3악장,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전 악장 등 귀에 익은 작품들을 연주합니다. 시니어 팀은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2번 인터메조, 하이든의 교향곡 82번 알레그레토, 비발디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토 8번 3악장, 록 비트의 Red Rhythmico 등 재미있는 곡으로 꾸몄습니다. www.khomeschool.com 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오케스트라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6월 2일 연주는 전석 초대이며, 6월 7일 입장권은 10,000원입니다. 입장권 수익은 환우를 위해 쓰입니다. 구입문의는 성남 아트센터 인터파크(1588-1555 / www.interpark.com)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한양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DMA)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및 대학원,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늘소리 홀스쿨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원제: Sound Stewardship)』 (DCTY)이 있다.

영원한 나라를 맛보는 모범적 우리 찬송

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성가대석은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하던 1963년 봄, 연세대 강의실에서 강의 첫 시간에 들은 박태준(朴泰俊, 1900-1986)박사의 말이 아직도 인상에 남는다. 당시 그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종교음악과 과장으로 계셨는데, 찬양대 자리는 마음껏 뽐내는 연주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을 위한 자리로 지휘도 그렇게 겸손히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찬송은 수영하기 전의 준비운동 같이 설교를 장식하거나 기분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며 지금도 흔히 사용하는 “찬송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읍시다.”라는 말을 금하였다. 찬송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감격적인 예배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생 남대문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신 그는 교회에서 성가대지휘자는 음악목사(music minister)나 음악교역자(music director)이기에 집사나 장로의 직분 받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여겨 극구 사양하였다. 당신 자신이 몸소 음악교역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 교회 음악인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표피적인 재미보다 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작곡정신이며 교회음악철학이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점음표가 없고, 사분음표(♩) 중심의 음절식(音節式, syllabic style)이다. 가장 모범적인 찬송으로 일컫는 ‘거룩 거룩 거룩’(8장), ‘전능왕 오셔서’(10장)처럼 무게가 있다.

또한 이 찬송은 7음계(音階)중에 ‘파’(fa)와 ‘시’(si)가 빠진 ‘도 레 미 솔 라’ 다섯 음만으로 작곡되었고, 동음(同音)진행이 많으며, 우리 고유의 장단이 스며있다. 우리 민족 정서가 깃든 한국적인 찬송을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다. 국제 예배 컨퍼런스에 종종 참석한 그는 한국적 찬송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독일교인들은 독일찬송을 부르고, 프랑스교인들은 프랑스찬송을 부르며, 아프리카교인들도 아프리카찬송을 부르는데 왜 우리 한국교인들만이 미국찬송을 부르느냐 말이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 년대를 보면 1967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개편찬송가를 편찬한 해이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323장)을 지은 이호운(李浩雲, 1911-1969)목사는 평남 강동 태생으로 감리교 대전신학교(현 목원대학) 교장을 역임한 분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는 말씀을 주제로 한 찬송이 여러 편 되지만(421장, 431장, 551장, 554장 등) 이 찬송이 그 중 최고다. 이처럼 은혜로운 시와 우리 얼이 담긴 멜로디가 우리나라 교인들이 애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의 “맛보니”가 가장 마음에 든다. 원래 시엔 “영생을 누리며”도 “영생을 맛보며”로 쓰였다. 하늘나라를 미리 끌어당겨 맛보는 삶,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나.

* 지난 호에서 ‘찬송가 개역개정 31장’은 편집자 과실이며 ‘찬송가 31장’이 바른 표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고전교육 시리즈 3

기독교적 고전학교, 그 즐거운 상상

안정진

‘3학과 중심의 학교’를 세우려 했던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의 즐거운 상상은 북미에서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Reformed Church)를 배경으로 현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기독교적 고전학교들은 시작부터 ‘고전적,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이라는 두 가지 모토 위에 학교를 세워왔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적 고전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강조

‘고전적’(classical)이라는 말은 고전교육의 ‘구조와 형식’을 의미한다. 미국기독교고전교육연합(ACCS)에 속한 고전학교들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다음의 것들을 강조한다. 먼저, 모든 과목에서 3학과(trivium, ‘문법, 논리학, 수사학’)를 강조한다. 사실, ‘고전교육을 한다는 것’은 ‘3학과’를 체득한다는 말이다. 부모는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가 ‘3학과’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한다. ‘배움의 도구’들을 체득하는 것은 일평생을 배움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교육을 한다는 것’은 ‘고전정신’을 소유함에서 시작된다. 고전정신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과거의 유산을 각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의미에서, ‘감사’는 ‘3학과’의 두 번째 단계인 ‘이해’의 단계보다 먼저 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창조세계를 붙잡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은 기독교 교육일 수 없다.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감사’는 ‘이해’에 올바른 방향 뿐 아니라, 아이의 삶의 방향에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세속 교육에서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homo sapiens)로 정의 되지만, 기독교 교육에서 인간은 철저히 호모 아도란스(homo adorans)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주 앞에서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고전교육을 기독교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심성을 아이의 삶 속에 두는 것 외에는 없다. 아래와 같이, 고전교육이 ‘지식’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지혜’로 나아가지만, ‘문법’(지식)과 ‘논리’(이해)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배)를 두지 않는다면, 비록 기독교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인본주의적 교육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법(지식) ▶ 감사(예배) ▶ 논리(이해) ▶ 수사(지혜)

배움과 삶을 사랑하도록 강조

둘째로, 배움과 삶을 사랑하며, 학문적인 소명을 펼치도록 강조한다. 두 번째 강조는 교사들을 향한 것이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열정과 애정이 없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교사 스스로가 가르치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과목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열정으로 가득차고 잘 훈련된 양질의 교사들이 교실 마다 배치되어 있다면 이보다 중요하고 큰 자산은 없을 것이다. 고전학교의 시작은 교사들의 훈련과 준비된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있다. 준비된 교사들이 있는 곳에 준비된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학생들을 격려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나머지 학교생활을 그 기초위에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단지 ‘배움의 도구’ 들을 얻는데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려는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면학 분위기를 강조

마지막으로, 모든 목적들이 올바르게 성취, 생산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강조한다. 고전학교들은 매우 엄격하고 품위 있는 ‘질서’ 를 강조한다. 이러한 ‘엄격함과 질서’의 바탕에는 학생들을 향한 ‘공평과 사랑’이 놓여 있다. 학생들을 향한 ‘공평과 사랑’이 중단되지 않을 때, 규율의 엄격함이 오히려 기능되며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훈계와 징계’ 없는 ‘공평과 사랑’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질서 없는 혼란한 교실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다. 이런 중심에서, 고전학교는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체벌을 사용한다. 물론 한 아이가 징계를 받을 때 부모는 모든 단계에 관여한다. 학교의 위치는 부모를

“ 참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돕는 것이지 결코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징계는 부모와 함께 한다. 즉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부모와 의논되고 보고된다는 말이다. 교사는 감시자 혹은 밀고자가 아니라 부모의 보조자로서 기능한다. 이런 태도는 ‘징계와 훈계’에서만 아니라, 학교의 전체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난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징계의 주된 목표는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은 성경을 중심에 두고 통합된 전체의 부분으로 모든 과목을 가르친다(딤후 3:16-17; 골 1:15-20). 기독교적 고전학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 교육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위해선 세상에 ‘세례’를 주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일반 공립학교들이 가르치는 교과목에 ‘기도’로 물을 뿌리고, 성경과목을 개설하는 식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인본주의 교육은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두지만, 기독교 교육은 그 중심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 그러므로 교육에 중립 지대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실, 모든 진리는 어떤 세계관의 빛 가운데서 이해된다. 이것은 역사, 예술, 수학 등의 모든 과목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안에서 가르쳐 져야 함을 뜻한다. 성경은 이 계시를 가르치는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서

도 성경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성경 과목을 세속적인 교과과정에 끼워 넣는다고 해서 결코 기독교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홈스쿨 역시 마찬가지다. 참된 기독교 교육을 위해 ‘성경과목, 기독교 교사, 기도’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독교 교육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 요소들이 발견되는 곳이면 그 곳이 어디든지 기독교 교육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세계관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침투되고 전수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교과서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모든 종류의 공교육의 실패는 ‘인간과 지식’에 관한 잘못된 전제, 곧 인본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전제 위에 학교와 학생을 양육해 가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파괴적인 활동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유지된다면, 기독교적 장식물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과 지식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특정한 세계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다. 기독교인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고, 그 대답은 전체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적인 기독교인 삶의 모델 제공

둘째로, 성경적인 기독교인 삶의 분명한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마 22:37-40; 마 5:13-16). 모든 기독교인에게 ‘외식’은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교사와 직원들 모두에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한다. 사실 ‘외식’이 목인 될 때, 그것은 보다 나쁜 문제로 나아간다. 이런 경우에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은 ‘죽은’ 정통이 될 수밖에 없다. 비기독교적인 삶은 비기독교적 가르침으로 나아갈 뿐이다. 부모와 교사 혹은 교직원의 ‘외식’은 학생들의 모든 학습과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모범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신실한 교사와 직원들의 삶은 학생들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교실 속에서 격려와 훈계, 책망과 바르게 함은 그러한 능력 가운데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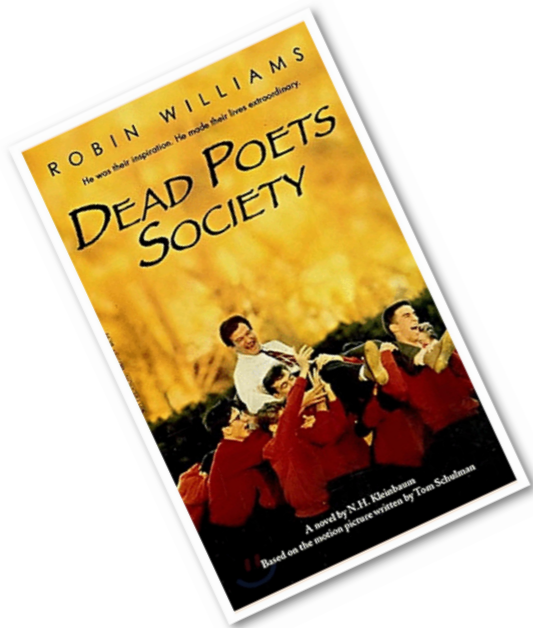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격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마 19:13-15). 사실 중생이 없이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해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아이는 결코 자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심고 물을 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각인의 생명 속에서 성장을 일으키신다. 따라서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비록 기독교 교육이라 할 지라도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완전한 인간을 꿈 꿀 수 없는 것이다. 공립학교 교육은 시작부터 교육이야말로 인간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들이 학생을 향한 엄격한 통제와 규율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교육철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교육 환경은 매우 율법적일 수밖에 없으며, 교사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외식이 자리 잡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교실 안에서 도덕적인 환경을 창조하게 한다. 좋은 가르침은 합리적인 기독교적 지성과 경건한 기독교적 삶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고전 15:1-8). 믿음과 회개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고전 학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갖지 못하는 모든 아이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관계 속으로 데려가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이 제공된다. 만일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관계를 발전 시켜 가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인 셈이다.

나가면서: ‘카르페 디엠’?

‘과거와 대화 하는 것’은 고전교육의 심장과 같다. 그러나 맹목적인 과거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과거의 전통에 집착 할수록
‘알맹이’는 소홀히 하고, ‘외모’만 치장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야한다. 과거의 전통에 집착 할수록 ‘알맹이’ 는 소홀히 하고, ‘외모’만 치장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개봉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The Dead Poets Society)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1859년에 설립된 명문 고등학교의 새 학기 개강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학교의 출신의 새 영어 교사인 ‘키팅’ 선생(로빈 윌리엄스 역)은 수업 첫 날부터 파격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키팅’ 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는 별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를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이 학교의 현관에 새겨진 라틴어 속에 선명히 제시된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오늘을 살라). 키팅은 19세기에 살았던 미국 시인 ‘윌맨’(Whitman)의 시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지금 까지 이 영화는 대체로 양질의 교육영화로 호평받아 왔지만, 이 영화 속에 전제된 세계관은 ‘허무주의’가 지배적이다. 키팅은 소년들에게 탁월함을 위해서

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날 니체나 헤밍웨이와 같은 사람들이 품었던 전제인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솔로몬 역시 ‘해아래’ 존재하는 공허함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었다. 영화 속의 학교는 진정한 고전교육의 유산을 탕진해버린 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영화는 내용이 없이 외모와 분위기만 남아 있는 학교에 ‘인간의 자율성’ 혹은 ‘허무주의’와 같은 거짓된 유산이 채워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소망은 탕자가 유산을 자기 파멸에 사용한 것처럼 되기 쉽다. 역사적으로, 거짓된 소망이 자리 잡은 고전학교들은 결코 오래 가지 못했다. 때문에 기독교적 고전교육 혹은 고전학교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전의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반석 위에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안정진 목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Th.M, 신약학), New Saint Andrews College에서 M.A. in Trinitarian Theology and Culture을 공부했다. 아내 조성희와 함께 세 딸(송희, 시은, 유진)을 홈스쿨링하고 있다.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성찬에 관한 묵상 에세이』(SFC)외에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2011년 9월 개교

SENIOR K(유치원) | GRAMMAR LEVEL(초등학생)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o God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의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30년간 성공적인 교육단체로 자리잡은 ACCS(The association of Classical & Christian Schools)의 멤버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기독교 고전 교육방법을 선보입니다. 중세 3학과(trivium)로 알려진 배움의 도구를 사용하여 성경적 고전교육으로 부활시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수업은 이중언어로, ‘국어, 한국사, 한문’ 등은 한국어로, 나머지 과목은 영어로 진행합니다. 여러 언어와 인문학의 주요 근간인 라틴어(Latin), 헬라어(Greek)도 가르칩니다.

***3학과TRIVIUM | 문법, 논리학, 수사학의 3단계로 나누어 심층적, 통합적,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문법 단계(6-10세): 사실의 숙달

학생들은 읽기, 쓰기, 철자의 기본, 라틴어/헬라어, 암기 및 사고 기술, 성경과 역사, 수학, 과학 등 각 과목의 언어를 공부한다.

2. 논리 단계(10-14세): 논리의 학습

학생들은 토론하기, 논쟁하기, 해석하기, 사실에 뒷받침되는 바른 결론 도출하기, 논쟁 속 오류 분별하고 여러 과목을 통합한다.

3. 수사 단계(14세 이상): 언어의 사용

학생들은 웅변과 설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문어와 구어사용을 능숙하게 발달시킨다.

▶ **모집대상:** Senior K(유치원) | Grammar Level(초등학생)

▶ **정원:** 1학급 20명(학년별 2개 학급)

▶ **학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 **문의:** Office. 02-557-7710 | Email. sicacademy@dcty.co.kr | C.P. 010-2910-6875

교회란 무엇인가?

레슬리 뉴비긴 저, 홍병룡 옮김, 서울: MP, 2010



글 이승구 협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레슬리 뉴비긴의 초기 저작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에 관한 책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35년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1974년부터 영국 상황을 새로운 이교적 상황으로 보고, 이교적 인도에서 선교적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신경 쓰던 그가 새로운 이교적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조국과 그 영국의 한 부분인 유럽을 보면서 이런 정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다가 1998년 돌아간 그의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교회론은 우리들의 고민을 대한 좋은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책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그가 남인도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안식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으면서 그가 글라스고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주에서 행했던 커 강좌(Kerr Lectures)로 1952년 11월에 행했던 강연을 1953년에 출판한 그의 초기 저작 중의 하나이다. 사실 당시에 레슬리 뉴비긴은 이 책으로 명성을 더 얻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이 책의 큰 기여는 기본적으로 이 책 제목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준다는 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하면 적절한 이 책의 제목인 *The Household of God*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이 제목이 그로부터 나온 디모데 전서 3:15을 우리 말 성경에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한 말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 주는 말이다. 즉, 디모데서가 말하는 ‘하

이 책의 큰 기여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준다는 점이다.

나님의 집’이 (한국 교회의 예배당 건물 초석에 자주 인용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혼동시키고 오도하는 대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잊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둘째로, 이 책은 몇몇 중요한 요점을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음과 이신칭의를 잘 설명하는 레슬리의 설명 부분은(제 2장 앞부분) 요즈음에 와서 (샌더스[E. Sanders]나 제임스 던[James Dunn]이나 라이트[N. T. Wright] 등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리를 손상시키는 일에 매우 친숙해진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길밖에 없다”(52,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하며,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의존함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다. 다른 길은 없다”(55,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단언하는 그의 강한 말들은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53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적 가르침과 내포주의적 가르침이 더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단호히 반대해야 마땅하다”(156)는 말이나 그리

스도의 자비를 강조하면서 “그 자비가 아니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163), 특히 “믿음의 의를 행위의 의로 보충하려 한다면, 그리스도를 죄의 앞잡이로 만드는 셈이다”(45), 또한 “은혜를 행위로 보충하려 한다면, 이는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48)와 같은 주장은 우리 시대에도 매우 강하게 선언되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임을 잘 설명하는 부분도 그가 아주 긍정적 기여하고(저자에게 질문)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제 5장 앞부분). 특히 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말하면서 “그 날 아침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는 단언을 하는 것은(137)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 오늘날의 신학계와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실질적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레슬리 뉴비긴의 이런 말에 강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이해 없이 그저 부활을 말하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도 역시 같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사는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잘 설명하는 부분도(특히 141, 151-53) 레슬리 뉴비긴의 중요한 기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어진 시간”임을 강조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르는
수레와 같고, 그 자체가 자신이
전하는 구속 이야기의 일부이다**

하면서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을 낳지 않는 종말론은 그릇된 종말론임을 천명하고(165, 169), “교회가 그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며(181), “그리스도인이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고 하면서(185),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찬란한 호칭들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한다”(175)고 언급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175) 말하는 데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도 레슬리 뉴비긴의 큰 공헌이다.(저자 점검필요) 이와 연관해서 “교회들은 (거의 천 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적 상황에 던져졌다”(20)고 말하는 것도 서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이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은 몇 가지에 대하여 중요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정확한 비판이라고 할 만한 것들로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사건으로서의 성질을 제시하는 칼 바르트의 사건적 교회론에 대한 레슬리 뉴비긴의 정당한 비판을 치하해야 할 것이다. 여러 면에서 바르트의 신학과 유사한 입장을 전개하는 뉴비긴이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한 것은 역시 어느 한 사상에 얽매이지 않음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뉴비긴은 바르트가 “종교개혁자들의 역동적 교회 개념”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59, 60). 교회는 사건이라는 바르트의 이해 속에서는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이나 다른 장소, 시기에 속한 회중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매우 옳은 비판을 하고 있다(60). 한마디로 그는 바르트의 교회론에서는 “종말론적인 특징이 역사적 성경을 완전히 밀어낸 것이다”고 하면서(60) 바르트의 역동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뉴비긴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교회는 단순히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이라는 사건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은 그것이 연속성을 지닌 역사적 사회,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단 한번에 구성되고 파송된 사회라는 데에 있다”(70, 71).

또한 교회를 성육신의 연장으로 언급하며 그렇게 보려는 일부 천주교회와 어떤 신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하다. 그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되나 “성육신의 연장으로서는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97, 그 자신의 강조점). 더 나아가서 “사실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100).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르는 수레와 같고, 그 자체가 자신이 전하는 구속 이야기의 일부”인 것이다(113).

또한 자신과 비슷한 교회론을 제시하는 호켄다익의 교회론²⁾을 소개하면서, 그가 교회를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관념에 반대하면서 순전히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론을 제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³⁾고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이므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하면서(180) “교회가 그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181)고 비판적인 논의를 잘 전개하고 있다. 교회는 선교 사역을 위한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궁극 이전의 것이기는(알 수 없는 표현) 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은 레슬리 뉴비긴의 중요한 기여이다. 교회는 “단순히 그 사명에 의거하여 정의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견지에서만 정의하면 안 된다”(182). 교회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쓸 때 레슬리 뉴비긴이 품고 있었던 근본적인 주제(agenda)와 그 배후에 있는 그의 신학은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긍정적인 기여를 상당히 무색하게 한다. 레슬리 뉴비긴은 장로교, 회중교회, 성공회, 감리 교회의 연합으로 탄생한 남인도 교회의 초대 감독 중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WCC 형성에 대한 노력과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동방 정교회를 제외한 개신교회, 천주교회,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일종의 교회론적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강연을 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셋이 “모두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며 교회의 모양을 손상시키고 그 메시지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책이 보여 주었다고 한다(133). 또한 그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영입되는가”에 대한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대답이 “모두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결정적인 요소로 주장할 경우에는 왜곡과 오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고 말한다(159).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각추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서로를 인정할 때다.... 우리는 ‘모두 길을 빗나갔고, 모두 무익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163). 그러나 이 은혜롭게 들리는 말이 결국은 이신칭의와 교회의 표지를 버리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 레슬리 뉴비긴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려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1) 사실 이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그런데 뉴비긴은 개신교회의 교회론이 이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문장으로 개신교 교회론을 비판하려고 한다(71). 이는 그가 개신교 교회론을 신정통주의적 교회론의 빛에서 보고 개신교 교회론을 오해하여 잘못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할만한 것이다.
2) Cf. J. H. Hoekendijk, in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July, 1952), 특히 334: “교회의 본질은 그 기능으로 충분히 규정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기독교학문연구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총 8개 분과에서 3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학원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중에서 '청년기 독학술발표논문상'을 선정하여 강상우(백석대), 방승미(충신대)씨가 수상하였습니다.



한중국제학술교류

본 세계관동역회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중국 절강대학교 산하 교육부철학사회과학 창신기지 기독교와타문화연구중심과 함께 한중 동아시아 기독교연구소를 합작설립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학술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기독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세계학계와 궤를 같이하여 기독교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균 목사가 주도 하고 손병호 이사장과 김승욱 실행위원장이 검토하여 소망교회 등 5개 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소망교회 북방선교위원장 장춘 장로께서 본 사무국을 방문하여 올해 사업추진비로 5천만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등 여러 교회와 동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 5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 안내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는 기독교대학과 기독교 학문에 관심있는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갖는 축제의 장입니다. 오는 6월 22일(수)~24일(금)까지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등록 또는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041-550-2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iches.org 참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 (2011.4월)

개인회비_단위(원)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박경준, 윤경선, 조성진, 한인관, 황정현 3천5백 노승욱, 유경상, 정경식, 정세열, 최원길 5천 강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민, 김일환,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중규, 김철수, 김태운, 김현승, 김혜창, 남상수, 남서희, 마민호, 박기언,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배무런, 백동희, 범경철,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현주, 심정하, 안현상, 양숙,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정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상미,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인수, 이인주, 이한기, 이향숙,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남기, 장옥경, 장현일, 전정진, 전종화, 전충국, 정범채,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용준, 하운상, 허재일, 홍승기, 황나란, 황의서 1만 강미라, 강서희, 강은정, 고현경, 김경희, 김광순, 김성상, 김세령, 김세중, 김영애, 김영완, 김영화, 김은혜, 김정일, 김정호, 김홍섭, 김효숙, 류화원, 명윤수, 박대일, 박두한, 박시운, 박창우, 박한배, 박혜경, 사공성대, 서성록, 소종화, 신성혜, 신효영, 안석, 안용준, 양성만, 양성일, 오혜정,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동수, 윤매옥, 이관후, 이광호,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현,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윤석, 이운재, 이정길, 이종국, 이한길, 임선재, 임일택,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전태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조용현, 조현철, 주성철, 최한빈, 최현두, 한혜실, 허찬영 1만5천 김선화, 최동원 2만 강대훈, 권민규, 김세완, 김옥태, 김용식, 김혜경, 노용환, 문대성, 박강국, 박영혜, 배은경, 변우진,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이신영, 최승오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김중호,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오의석, 우병훈, 윤석찬,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현욱,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추태화, 황정진 5만 김성락, 김시호,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송인규, 신국원, 이승구, 현은자 10만 김승태, 김원수, 안경환, 김의원, 박상은, 윤완철, 전광식, 손봉호 12만 김정효 15만 양승훈 20만 임준택 30만 박동렬 100만 김승욱 합계 5,296,500원

후원기관_단위(원)

1만 빛과소금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군산성광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교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샘물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은혜로교회, 자운교회, 참빛교회, 호산나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300만 (주)아나패스회
합계: 6,040,000원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 1. 월간 세계관 전문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을 보내 드립니다.
-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5. 연 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 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 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ristian College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

일시 : 2011. 6. 22(수) ~ 24(금)

장소 : 롯데부여리조트

대상 : 기독교 대학 및 학문 관심자

문의 : 041)550-2090~2092

주관 Main Host_
Baekseok University

공동주관 Co-Host_
Kosin University • Handong Global University

공동주회 Sponsor_
Kangnam University

기조강연 Keynote Speech

Duane Litfin

Wheaton College, President Emeritus

1_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ristian College

2_Christ-centered Higher Education: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take?

주제강연 Lectures

Robert F. Cochran Jr.

Pepperdine University
Law

Hisakazu Inagaki

Tokyo Christian University
Public Philosophy

Jolyon Mitchell

Edinburgh University
Media Communication

Walter L. Bradley

Baylor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

Han, JungWha

Hanyang University
Management

Chu, Tae-Wha

Anyang University
Christian Culture